

음.. 우선 이 전시가 수업,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 봅니다. 수업이니, 교육이니 하니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모 그런 뻔한 애길 하려는 걸루 들릴수도 있겠네요. 글치만 감독이 생각하는 교육, 수업은 경험과 삶과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교육의 장에 모인 공동체가....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무얼 ‘가르친다’는 걸 전 상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도 그랬고 지금도 감독은 누가 날 가르치는걸 참지 못해요. 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모, 얘기를 너무 샅길로 빠트리진 안겠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도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일이 이뤄져야겠고 특히 이번의 ‘선정적 드로잉’전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들을 통해서도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즉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거이지요. 모, 이렇게 얘기해 노코 보니까 세상의 모든 활동이 서로의 삶과 정보를 나누는 것일쥬대는 교육과 수업이 아닌게 업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권 교육현장은 모, 이런 세상사 중에서 특별히 삶과 정보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장소이자 때라고 정리할수 있겠네요.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누가 누구와 논쟁을하여 승리, 혹은 패배하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이기는 , 아 이런 표현 보다는 서로가 맘 상하는 일 업시 우스며 논쟁이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뜻에서 입니다. 여기서 감독의 역할은 의견의 조정자이자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개진하며 논쟁에 참여하므로써 자칫 표류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마무리짓는게 될테지요. 언제까지나 시간을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감독, 게시판 글들을 주의깊게 읽었고 몇몇 학생들과 장시간 챗을 통해 얘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전제하고 시픈 거슨 반선생의 드로잉을 선정성을 문제삼아 팜프렛에서 ‘수위조절’하는 그어떤 ‘기관’도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모두 그 자체가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조직이라면 조직일 뿐이지요. (이런걸 기관업는 신체라고하나 혹?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흠..)

감독은 물론 객적으로 반선생의 드로잉이 어떠한 가감도 업시 팜프렛에 실려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감독과 의견이 같은 학생들이 많다고 보았고 그 드로잉에 불편함을 느껴 의견을 낸 학생들 조차도 이 원칙 즉, 개인의 작업이 존중 되어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예술 창작의 자유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어처구니 업시 속박당하는 곳에서는 감독의 이와가튼 생각이 말로되어 드러날 때 독으로 작용될 위험이 다분히있다고 보기 뻔에 서빨리 말로 내뱉지안습니다. 개인의 예술 창작의 자유는 존중 돼야합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지요. 반선생의 드로잉은 하나의 가감 업시 그대로 실리도록 합시다.

이제 서로 엇갈린 감정들을 보듬는 일이 남았네요. 이렇게 결정되므로써 ‘소수의견’을 낸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맘에 상처입지 아났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감독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고 맘 상했던 반선생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 이런 립서비스가 별루 도움

이 되지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오히려 사태를 잘 분석하하고 이해함으로써 꼬인 감정이 좀 풀리리라고 봅니다.

조감독에게 위로의 말 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겠네요.이러한 사안은 학생들로부터 듣고 곧바로 반선생에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일단 감독에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에는 반선생이 학생들에게 낯선 존재였죠. 삶과 경험을 나누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간의 축적에 따른 감정과 정서의 공감대가 구축 되어야하는데 반선생과 학생들 사이엔 그럴 겨를이 업었다는거죠. 그러다보니 맘들이 상하게 되는 논쟁-교육의 비효율성이 비집고 들어오는거죠.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며 사용한 언어들 잘 숙고하여보면 그들이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알고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권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포르노에 대한 언어 즉 사고의 틀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쓰고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성, 섹스, 포르노-예술 이런것들에 대해....이 혼란의 매듭을 약간만 풀어주면, 쓰고있는 사고의 틀을 약간만 벗겨주면 훨씬 그들에게서 우리(감독, 조감독, 반선생, ...)가 경청해야할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얘기가 자못 추상적으로 흐르는군요.

반선생이 이미 언급했듯이 이 드로잉을 보고 불편을 느낀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선생의 글에서 아쉬운 점은 불편을 느낀 그들의 반응에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맞 대응함과 동시에 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리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스스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선정적이고 포르노 그래픽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굳이 이런 작품을 맹글었는냐에 대한 다소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조치 안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반선생은 그건 말안해도 서로 다 아는 사실로 설정해 노은듯 비켜가는데 그건 그러치 않습니다. 챗을 한 학생들은 그걸 궁금해 했고 그걸 감독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것만으로도 그들은 훨씬 편해지더군요. 물론 그 설명을 넘어선 지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 작품의 의도를 이해해도 그 드로잉에 대한 '역겨운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거죠. 이 역겨움을 그들은 미성년자 ,수위조절 운운 기존 매스미디어의 언어에 기대어 표현한 것으로(표현할수 밖에 업섯던 것으로)감독은 보고있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그 역겨움을 표현할 언어를 소개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 여성의 언어가 배제되어있는 포르노-예술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에 반성적 성찰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고 본 감독은 에.. 또 생각하는 바 되겠습니다. 얘기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데로 빠져 드네요.

한마디만 더하고 얘길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선생의 드로잉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역겨움은 성기중심적 성애(흠.. 페니스 앤 버라이어티 센트리즘으로 이름 붙여보니 그럴듯한걸...그러나 흥맹스럽게 불끈 솟아오른 페니스로 그 시각적 효과의 극대치를 구사하는 성기중심적 성애...)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의 표현으로 감독은 읽고있으며 그 역겨움의 표현이 기존의 제도권 매스미디어적 언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표현되므로써 반선생이 발끈('불끈'이 더... 나올라나...)하게 된 것이 아닌지

...

좀 더 하고 시픈 얘기(예컨대 비슷하다는 판 여학생의 그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일단 여기서 그만.....

찬바람썰, 기침 콜록 , 생썰 감독.